

“부산 핀테크기업 지원 약속…디지털 금융 인프라도 구축”

금융중심지 심포지엄 기조연설1- 이복현 금감원장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입력 : 2024-03-19 19:44:39 | 본지 2면

- 금융계 급변… 부산 위상 높여야
-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수립
- BIFC 중심 당국지원 안 아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산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금융당국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부산의 역량에 금융중심지 육성 노력이 더해지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에너지와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19일 부산롯데호텔 3층 펠름에서 열린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산은 지난 15년간 견고한 해양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생금융부문 중심지로도 확고히 자리 잡았다”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글로벌 금융 환경의 주요한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전환”이라며 “인공지능(AI) 분야와 연계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지형 변화 또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15년간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의 성과를 살펴보며 ‘밝은 미래’를 확신했다. 그는 “부산은 기술력이 우수한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반도체 AI 바이오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기술보증과 컨설팅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해운·항만 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규제와 같이 산업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해양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9일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그러면서 지역의 노력에 걸맞게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세 가지를 꼽아 제시했다. 첫 번째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디지털 환경에 장애가 되는 감독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사업도 직·간접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나 자회사 출자 규제와 같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및 기후변화 관련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산업의 감독 체계를 정비해 건전한 성장을 돕고,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과 좀 더 효과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위한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간 무한경쟁에 돌입한 지금, 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금융중심지 조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특히 대륙과 해양을 잇는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해양금융의 중심지인 부산에 BIFC를 중심으로 한 금융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고, 더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금융환경이 조성되도록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상도 국제신문 논설주간, 김기원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김광희 부산시 경제부시장, 반대인 BNK 금융그룹 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김재홍 IBK저축은행 대표이사,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